

베트남 누엔 단 쿠에 박사 말레이시아 시민사회 연합 2016 광주인권상 수상

누엔 단 쿠에 박사

빈곤층 인권 신장 40년 헌신

1994년 케네디 인권상 수상도



누엔 단 쿠에

버시

5·18 기념재단은 '2016 광주인권상 공동수상자'로 베트남의 인권운동가 누엔 단 쿠에(Nguyen Dan Que) 박사와 말레이시아의 시민사회 연합기구 버시(BERSIH) 2.0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누엔 단 쿠에(74) 박사는 빈곤층의 건강을 의연하고 공산당원만을 선택적으로 대우하는 베트남 정부의 관행에 맞서 1976년부터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인권 신장을 위한 그의 계속된 투쟁은 평화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세계인의 심금을 울려 그에게 지난 1994년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안겼다. 그 후속조치로 미국의회는 누엔 단 쿠에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자 5월 11일을 베트남 인권의 날로

지정했다.

공동수상자인 버시 2.0은 민주 개혁과 안정을 바라는 민중운동을 펼치는 말레이시아의 시민단체다.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체로 2006년 출범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라는 대의 아래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11월 이 단체가 벌인 대규모 시위로, 이듬해 총선에서 집권연합이 1969년 이후 처음으로 3분의 2 의석 확보에 실패할 만큼 말레이시아 정치지형의 변화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인

시민사회단체 '버시'

선거제 개혁 끝없는 투쟁

정치 지형 변화 이끌어

권과 평화의 가치가 누엔 단 쿠에 박사와 버시 2.0의 활동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며 "이들을 수상자로 결정함으로써 5·18 정신이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의 평화 인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상 시상식은 다음 달 18일 오후 5시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린다. 심사위원회는 육현진 천주교 광주대교구 총대리를 위원장으로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인제근 국회의원, 조현장 부산지치21 공동대표, 차명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으로 구성됐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2만 5000달러가 상금으로 지급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18 초등교과서 왜곡·축소 지적에

교육부 "교사용 자료 개발 보완 하겠다"

교육부가 초등 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축소 기술했다는 지적에 대해 교사용 참고자료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5·18 단체에 전했다고 5·18기념재단이 21일 밝혔다.

김대원 교육부 교과과정정책과장은 이날 광주를 찾아 5·18 기념재단, 5월 3단체(구속자회·구속부상자회·유족회) 대표자들에게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름으로 작성된 '5·18 역사왜곡대책위원회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답변서에서 "초등학교 6-1 사회 교과서의 5·18 민주화운동 서술과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18의 중요성을 고려해 진행 결과, 역사적 의미,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사진 등 시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참고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18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실은 내년 이후 보급되는 교과서와 지도서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잘못 기술된 교과서의 회수·폐기와 보완·수정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부는 "이번 학기에 배포된 교과서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개발된 교과서라 다른 교재로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를 수정·보완할 때는 5·18 역사왜곡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5·18 역사왜곡대책위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올해 일선 학교에 보급된 초등 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의 즉각적인 폐기와 수정을 요구했다. 해당 교과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기술하는 대목에서 '계엄군', '정변' 용어와 관련 사진이 누락되고, 계엄군의 학살행위와 시민들의 항쟁의 인과관계를 뒤바꿔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가유공자 합동 봉안 및 안장식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광주시지부는 21일 빛고을체육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13위의 대전 현충원 이장을 위한 국가유공자 합동 봉안 및 안장식을 개최했다. 13위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공을 세운 호국영웅 11위와 그 배우자 2위다. /나명주기자 mjna@

5·18 시민군, 지만원 상대 3차 법적 대응

'북한군 배후설'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소키로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배후설'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지만원(74)씨를 상대로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했던 시민들이 3차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21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지씨에 의해 북한군으로 지목된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은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조만간 지씨를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8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고소인단은 지씨가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서 '광수(5·18 당시 광주에

서 활동한 북한특수군'라고 지목된 이들에게.

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수들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공로로 북한에서 요직을 차지했다', '5·18은 북한군이 배후에서 조종한 폭동'이라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19일 등록된 게시물까지 지씨가 '광수 ○호'로 지칭한 5·18 당사자는 445명에 이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회사의 이윤을 장학사업이나 사회적 공익활동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의뢰인들께 항상 진실과 성실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창사 64주년

稅務士白石事務所

세무사 백 석 (10회)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북개로 147(치평동) 아트빌 202호
TEL : 062-364-9177~8, 9180
H·P: 010-3316-0706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2 해질 19:11 달돋이 19:13 달질 05:58

주말 날들이 가세요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차차맑아짐	12/25	보성	차차맑아짐	10/24
목포	차차맑아짐	11/21	순천	차차맑아짐	14/26
여수	차차맑아짐	14/22	영광	차차맑아짐	10/23
나주	차차맑아짐	10/25	진도	차차맑아짐	9/21
완도	차차맑아짐	12/23	전주	차차맑아짐	12/24
구례	차차맑아짐	11/25	군산	차차맑아짐	10/20
강진	차차맑아짐	10/23	남원	차차맑아짐	12/25
해남	차차맑아짐	10/23	속산도	차차맑아짐	9/17
정성	차차맑아짐	10/2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1.0	서~북서	0.5~1.0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	서~북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서~북서 0.5~1.5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서~북서 1.5~2.5	남서~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남)	남서~서 1.5~2.5	남서~서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2:24	07:37
	14:30	19:45
여수	밀물	썰물
	09:13	03:09
	21:39	15:10

주간 날씨

23(토)	24(일)	25(월)	26(화)	27(수)	28(목)	29(금)
☀	☀	☀	☀	☁	☀	☀
11/22	9/24	10/24	9/24	12/19	10/22	9/23